

2020. 10. 05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에너지타임즈 기사링크	
(요약) 1MW 이하 태양광 3곳 중 1곳 계통접속 대기 - 1MW 이하 태양광발전소 1/3이 계통접속 대기 상태 계통접속신청 대비 완료 비율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 - 계통접속신청 대비 완료된 비율은 2017년 89.5%, 2018년 55.9%, 2019년 65.8%, 지난 8월 말 33.5%	
<div>  <div> <p>발전설비용량 1MW 이하 태양광발전소 3곳 중 1곳이 계통접속 대기 상태에 있고 계통접속신청 대비 완료 비율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1년 중으로 42GW 중 24GW가 계통에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p> <p>27일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1MW 이하 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현황에 따르면 2016년 10월 정부가 1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정책을 추진한 후 민간 사업자가 1MW 이하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을 신청한 누적 설비는 지난달까지 모두 14.4GW(8만3840건)에 달했다. 이중 발전설비용량 42GW는 현재 계통접속이 이뤄지지 않아 대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p> <p>이 의원은 실제 계통접속비율 관련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한전의 자료를 인용해 계통접속신청 대비 완료된 비율은 2017년 89.5%, 2018년 55.9%, 2019년 65.8%, 지난 8월 말 33.5% 등이라고 설명했다.</p> <p>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 정부 출범 후 태양광발전 등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나 설비를 갖추고도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웃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p> <p>이어 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전력계통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발전소로서 아무 의미도 없는 만큼 전력계통 연계와 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정부는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송·배전설비 부족으로 건설되지 않은 계통접속 대기는 42GW로 전체 29%이며, 24GW는 배전선로와 주변압기 적기 확충으로 1년 이내에 계통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p> <p>그러면서 정부는 일부 지역 재생에너지 집중과 급속한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p>다만 전력업계는 송·배전설비 확충 관련 과거보다 민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과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p> </div> </div>	

2020. 10. 05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에너지타임즈 기사링크	
(요약) 北 태양광 잠재량 연 1130TWh...南 4배 웃돌아 - 북한 재생에너지 평가결과 태양광발전 잠재량은 연 1502TWh로 남한 4배, 풍력 연 1130TWh vs. 남한 942TWh -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으로 태양광발전 세트 보급 협력사업, 태양전지 생산 협력사업, 풍력발전단지 건설 협력사업, 북한 수력발전 현대화 협력사업, 남북 CDM사업 협력사업 등을 제안	
<div>  <div> <p>북한 태양광발전 경제적 잠재량이 남한의 4배를 웃돈다는 내용의 연구자료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p> <p>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북한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수</p> </div> </div>	
<p>립에 관한 연구자료를 4일 공개했다.</p> <p>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 연구자료를 통해 북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평가하는 한편 북한 진출을 위한 남한 정부의 법·제도 보완책과 함께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p> <p>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엔(UN) 대북제재 해제 대비 신재생에너지 통한 협력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한반도 비핵화 이후 북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p> <p>북한 재생에너지 평가결과 태양광발전 경제적 잠재량은 연 1502TWh로 남한 411TWh보다 4배나 높았고, 풍력발전 경제적 잠재량은 연 1130TWh로 남한 942TWh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p>이 연구자료는 북한 태양광발전 관련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TV 등의 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자체적인 태양전지 초기생산단계에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 외국산 태양전지를 수입해 태양광버스·태양광유람선·태양광도로청소기 등을 개발하는 응용연구에 주력하는 한편 대학·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태양전지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다만 이 연구자료는 북한이 내 풍력발전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기초연구는 진척됐으나 산업화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한때 풍력발전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으나 최근 수입실적이 없음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제작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정했다.</p>	

그러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 연구자료를 통해 북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연구자료는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남북 전력부문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남한 전기 사업자가 북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법과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이 연구자료는 남북에너지협력센터를 구축해 북한 에너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필요한 에너지와 전력량을 조사해 남북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원제도 개선으로 민간·공공기업의 북한 전력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이 연구자료는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으로 ▲태양광발전 세트 보급 협력사업 ▲태양전지 생산 협력사업 ▲풍력발전단지 건설 협력사업 ▲북한 수력발전 현대화 협력사업 ▲남북 CDM사업 협력사업 등을 제안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UN 대북제재 영향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막혀 있고 북한 전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7000만 원의 막대한 연구비용을 들여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2020. 10. 06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100563691>

(요약)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5년내 두 배 넘게 성장할 것”

- 인프라시설 대부분이 대형 거래처와 장기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 수익이 경기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의 부도율도 전체 인프라 자산 부도율의 절반에 그쳐 방어적 자산으로도 매력적

“풍력, 태양광 등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5년 안에 현재의 두 배까지 커질 겁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케이스 더만 아레스매니지먼트 인프라발전사업부 공동대표(사진)는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본사를 둔 아레스는 자산 1650억달러(약 193조원)를 운용하는 대체투자 전문회사다. 미국 내 최대 풍력발전소인 에비에이터 윈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최근 수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더만 대표는 “지난 10년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전력 생산비는 70~90%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하는 비용은 절반가량 각각 감소했다”며 “발전 원가 절감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5년 내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안정성을 꼽았다. **인프라 시설 대부분이 대형 거래처와 장기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경기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2015년 이후 미국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과 맺은 전력 구매계약 거래량도 매년 40%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의 부도율은 전체 인프라 자산 부도율의 절반에 그쳐 방어적 자산으로도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2020. 10. 06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0051806222904>

(요약) 수소복합충전소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속에서 그린뉴딜이 강조되면서 크리오스 영향력도 커져

-올해 기후변화에 적응한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자기매김할 예정

"신규 사업부문의 매출 비중이 2018년 29%에서 지난해 40%까지 증가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복합충전소 설치로 미래 가치를 선도하겠다."

최근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대창솔루션 울주공장에서 만난 김대성 대표는 "기존 사업 영역인 주강 주조부문을 수익창출원(Cash Cow)으로 확보하고 자회사 크리오스를 통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에 약 13만 2389㎡(약 4만평) 부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주강 2 공장은 코로나 19에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공장 안내를 책임진 이창수 대창솔루션 전무는 "전 세계적으로 주강 소재산업만 하는 업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공장"이라고 설명했다.

공장 내에서는 대창솔루션이 세계 최초로 주강 방식을 이용해 개발한 원전폐기물 저장용기 RWC가 한창 출하를 앞두고 있었다. 기존 콘크리트 방식의 원전폐기물 저장방식에서 벗어나 철판을 사용해 박스형 주조품으로 제작, 동일 면적 대비 더 많은 원전폐기물 저장을 가능케 했다.

김 대표는 "캐나다 브루스 핵발전소 6호선까지 순차 납품하기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1호선에 출하를 완료했다"면서 "하나의 용기로 저장 및 수송을 완료할 수 있어 방사능 누출 등 기존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양플랜트 주강 부품의 경우 스웨덴 업체 스카나 등 대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우리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며 "광산기계부문에서도 미국 캐터필라의 공식 협력업체로 등록돼 의뢰받은 개발을 완료하고 일부 양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속에서 그린뉴딜이 강조되면서 크리오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크리오스는 초저온탱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대창솔루션이 9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올해 기후변화에 적응한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창솔루션은 현재 크리오스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주관하는 '천연가스 디젤 혼소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위한 LNG 공급시스템 개발,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등 정부 과제에 참여했다.

풍력발전소 날개 이음새 부분에 사용되는 대형 구조물 제작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LNG추진선에 연료탱크 및 연료공급장치를 납품하고 있다.

김 대표는 "수소 경제는 가격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라며 수소의 보관과 이송이 어려운 만큼 LNG와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제조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유통망이 확보된 LNG충전소에서 LNG를 개질해 수소를 만들어 그 자리에서 만들어 쓰는 방식"이라며 "복합충전소 형태로 LNG충전도 되고 수소도 충전되는 그런 형태가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 10. 07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에너지경제

[기사링크](#)

(요약) 트럼프, 경기부양안 협상 중단 지시...美증시 '휘청'

- 미국 민주당과 대치중인 연방대법관 지명을 두고 보수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을 지명하기 위한 압박전략
- 경기부양안은 트럼프가 대선 승리 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경기부양안 타결 지연을 민주당 탓으로 돌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 생계가 걸린 경기부양안 협상을 전격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영향으로 미국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나는 협상팀에 (경기부양안)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승리한 즉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과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큔에게 시간을 끌지 말고 나의 놀라운 연방대법관 지명자 에이미 코니 배럿 지명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안 협상을 중단시키고 배럿 지명자 인준에 초점을 맞춘 것은 보수진영의 관심사인 배럿 지명자 인준으로 이슈를 집중시키며 민주당과의 대치를 선명히 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부양안 타결 지연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공세도 강화했다. 의회에서는 여러 달 동안 추가 부양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극심한 이견으로 처리되지 않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중단 지시에 미국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4% 하락한 27,772.76에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0%, 나스닥 지수는 157% 떨어졌다.

미 언론에서는 부양책 마련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신용하는 미국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선언은 일자리를 잃고 퇴거 위험에 처한 수백만 미국인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을 죽여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방송은 "협상 중단 결정은 여전히 한 세기에 한번 올까말까한 세계적 유행병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인들에 중대한 타격이며 경기 회복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 10. 07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매일경제

[기사링크](#)

(요약) 피치, 주요국 줄강등 속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 국가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조정된 나라가 107개국에 달하지만 한국은 유사등급 국가 대비 경제성장을 양호
- 하지만 한국의 재정적자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은 위험요인 될 수 있다고 경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기존 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는 추세여서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피치 기준으로 AA-는 4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의미한다. 영국, 홍콩, 벨기에, 대만 등 국가가 AA- 그룹에 속해 있다.

최고등급인 AAA에는 독일 싱가포르, 미국 등 10개국, 다음 등급인 AA+에는 핀란드 등 3개국, 그 다음인 AA등급에는 프랑스 등 5개국이 포진해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줄하향하고 있다.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한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107개국, 211건에 달한다. 영국과 캐나다는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갔고, 미국과 일본은 등급 전망이 최근 하향조정된 바 있다. 현재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피치는 코로나19 확산이 한국경제의 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과 유사 등급(AA)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1%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이 속한 AA등급 국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인 -7.1%보다 우수한 수준이다.

다만 피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지출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높은 부채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0. 1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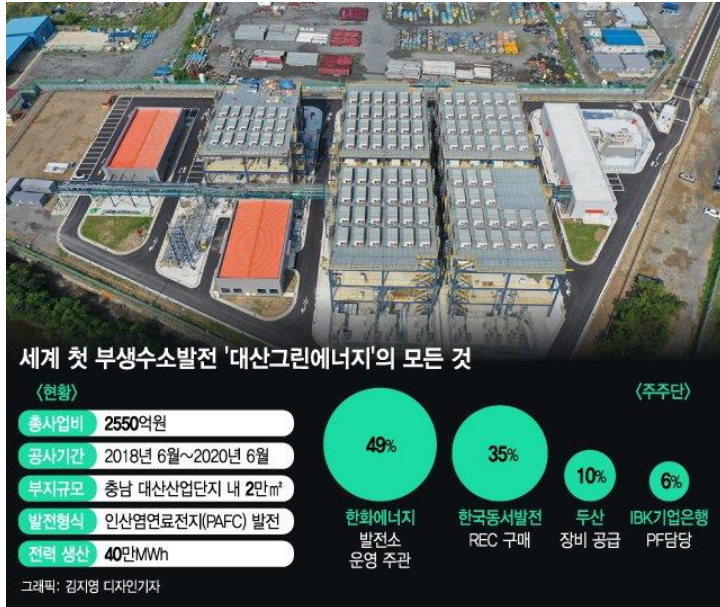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708094833048>

(요약) 한국형 수소발전, 세계로 향한다

- 한국형 수소발전은 세계 첫 부생수소 발전이라는 점에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아
- 중국이 한국형 부생수소 발전모델의 수출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는데, 내용고 석탄분해설비에 막대한 양이 필요



"올해는 한국형 수소발전이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수소 경제'(수소가 주 연료가 되는 경제) 관련, 에너지업계에서 나오는 공통된 반응이다.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1998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수소 모빌리티(이동수단)'가 그동안 한국 수소경제를 이끌어왔다면 이제 한화와 두산, 정부가 힘을 모아 내놓은 수소 발전도 이를 지탱할 한 축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한국형 수소발전은 세계 첫 '부생 수소'(석유화학정질 공정)를 통해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 발전이라는 점에서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다.**

충남 서산에 들어선 세계 첫 부생 수소 발전소 대산그린에너지는 지난 7월 28일 준공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이 '제로'다.

아울러 거대한 공기정정기 역할도 한다. 대산그린에너지에 설치된 연료전지는 발전에 필요한 공기를 끌어모으는 단계에서 발전소 내부에 설치된 필터를 통해 공기를 걸러낸다. 이 필터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μm 100만분의1 미터) 이하 크기의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낸다. 대산그린에너지는 성인 35만명의 호흡량에 맞먹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특히 이 발전소는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생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이 공장의 '아로마틱'(벤젠, 톨루엔, 자일렌처럼 6각 고리형 분자구조를 가진 탄화수소 화합물) 공정에서 시간당 3톤씩 공급되는 부생 수소가 지하 배관을 타고 대산그린에너지의 수소 연료전지로 공급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 버려지거나, 태워버렸던 부생수소를 '무(無) 연소, 무(無) 대기오염'의 수소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다.

화력발전소를 압도하는 가동 안전성도 눈에 띈다. 1년 365일 멈추지 않고 발전소를 돌릴 수 있다. 석탄과 LNG 발전소는 '심장' 격인 터빈이 멈추면 발전소가 멈춰서고, 재가동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대산그린에너지에 설치된 114개 수소 연료전지는 이 가운데 10~20개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전지들이 무리 없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산그린에너지는 연간 40만 MWh 전력을 생산한다. 인근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게다가 전기 생산지와 수요지가 가까워 별도 송전망 투자가 필요 없고, 환경 부담도 최소화하는 등 분산형 전원 취지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이 발전소는 특히 정부와 **한화** (26300원 ▲250 1.0%), **두산** (45800원 ▲150 0.3%)이 힘을 모아 건립했다. 한화에너지는 발전소 연료전지의 운전과 정비를 맡고, **두산퓨얼셀** (40700원 ▲900 2.3%)은 연료전지를 공급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곳의 생산 전력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 발전소는 한화에너지(49%), 한국동서발전(35%), ~~(주)두산~~(10%)의 지분구조로 운영한다. 한국의 기술력과 자원으로 새로운 발전 영역을 개척한 셈이다.

한화에너지는 부생수소 발전 가능성을 일찌감치 주목했다. 한화토탈이 아로마틱 설비를 증설한 2016년을 기점으로 부생수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이를 연료로 한 발전소 사업을 추진했다.

두산퓨얼셀의 역할도 크다. 2014년 미국 연료전지 업체를 인수한 두산은 연료전지 기술을 다양한 국내 업체에 전수했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국산화율을 98%로 끌어올렸다. 이제 두산퓨얼셀은 강소기업 데스틴파워와 개발한 연료전지용 ESM(전기제어시스템)을 '원조적인 미국에 역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대산그린에너지가 연간 생산하는 40만 MWh 전력은 두산퓨얼셀이 구축한 국산화의 힘이기도 한 셈이다.

대산그린에너지는 앞으로 글로벌 수소발전 패러다임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첫 발을 내디딘 부생수소 발전 모델은 중국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서다. 이들 에너지 강국들은 아직 1MW 이하 소형 부생수소 발전소를 검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의 시장 개척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두산 발전용 연료전지 산업생태계

	2014년	2017년	2019년	2020년
주요 이슈	CEP 인수	익산공장 준공	수소경제 확대	수소경제 본격화
직접고용	20명	180명	350명	380명
협력사	10개	60개	280개	300개
국산화율	0%	0%	98%	98% 이상
생산능력	0	63MW	74MW	90MW

그레픽: 유정수 디자인기자

특히 **중국이 한국형 부생수소 발전 모델의 수출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10년 내몽고의 석탄분해설비(CTO:Coal to Olefin)를 대규모로 증설했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부생수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내몽고 지역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수소는 모두 버린다"며 "앞으로 이곳이 부생수소 발전소 사업 1호 기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부생수소 발전의 글로벌 진출에 앞서 이제 막 뿌리내린 국내 사업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산그린에너지가 들어선 대산산업단지 외에도 울산이나 여수 등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 수소 발전소 구축을 모색하자는 것.

울산과 여수 등에는 GS칼텍스와 LG화학, 에쓰오일 등이 조단위 투자를 통해 설비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부생수소 발생도 기대된다. 여수에서는 빠르면 2년 안에 상당량의 부생수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0. 10. 08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0808120226779>

(요약) **현대오일뱅크, 전기차 고속충전소 200개로 늘린다**

- 주유소, 전기화물차 시장 선점위해 물류센터에 전용충전소, 드라이브스루 매장 등 전기충전소 네트워크 확보
 - 급속충전기를 고객들은 선호하지만 25년에도 전체의 20% 수준으로 머무를 것으로 보여

현대오일뱅크가 현재 직영주유소 20곳에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소를 2023년까지 200개로 확대한다.

현대오일뱅크는 7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인 차지인과 도심권 주유소에 100kw 급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주유소 외에도 수요가 늘고 있는 전기 화물차 시장 선점을 위해 유통업체 물류 센터에 전용 충전소를 설치하고, 접근성 좋은 드라이브스루 매장, 대형 편의점에도 진출, 전국적인 전기 충전소 네트워크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 고객 편의성도 높인다. 화물차와 택시 운전자에게는 심야 시간 값싸게 충전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퇴근 고객에게는 대기 시간 없이 신속한 충전이 가능한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 전기차 제조업체와 제휴, 프리미엄 세차, 공유 주차, 차량 렌트, 경정비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도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9만 대인 전기차 보급대수는 2030년 30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충전기 보급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뎠던 지난해 391대에 불과했던 충전기 1개당 전기차 대수는 2023년 11.1대, 2025년에는 148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환규 현대오일뱅크 영업본부장은 "**충전속도가 빠른 50KW급 이상 급속 충전기는 고객들이 선호하지만 2025년에도 전체 충전기의 2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증하는 전기차 고객을 주유소로 유치해 프리미엄 세차 등 기존 플랫폼 비즈니스와 시너지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